

질문의원(위원회)	차해영 의원(복지도시위원회)
질문요지	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관련 구정질문

【 질문요지 확인사항 】

1. 작년 12월 센터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 정식 계약이 아닌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, 2월에 12월 31일까지 9개월 연장 계약을 진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?
2. 지난 259회 마포구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7억 2천만원, 2023년 예산이 왜 정례회 2주 뒤에 문화예술과 자체적으로 5천만원 감액하여 6억 7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까?
3. 마포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15명과 매니저 2명, 총 17명이 4월 3일부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로 입주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.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포청년나루가 있던 상수빗물펌프장 공간이 아닌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로 입주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?
4.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간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의 무엇을 검토하였습니까?
5.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가 지정되기 이전인 지난 2010년 1월부터 서울시는 마포구 서교동 일대를 <마포 디자인·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>로 지정했습니다. 이를 이어 ‘문화’, ‘예술’이 살아있는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가 되기 위해 마포구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?

■ 답변내용

1) 작년 12월 센터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 정식 계약이 아닌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, 2월에 12월 31일까지 9개월 연장 계약을 진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?

- 당초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은 2022. 12. 31.까지였으나, 위탁방식(재계약 혹은 재위탁)을 결정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협약체결 등) 제3항에 따라 2023. 3. 31.까지 3개월 일시 연장 진행함.
-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2023. 12. 31.까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함.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센터의 운영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9개월만 체결함.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협약체결 등) 제2항에 따라 ‘위탁기간은 3년 이내’의 범위에서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지, 반드시 3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님.

2) 지난 259회 마포구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7억 2천만원, 2023년 예산이 왜 정례회 2주 뒤에 문화예술과 자체적으로 5천만원 감액하여 6억 7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까?

- 2023년에 편성된 센터 예산 7억 2천만원 중 5천만원은 센터 운영 개편 관련 교부하지 않고 6억 7천만원만 교부함. 2022년과 동일하게 교부하였음.

- 3) 마포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15명과 매니저 2명, 총 17명이 4월 3일부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로 입주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.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포청년나루가 있던 상수빗물펌프장 공간이 아닌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로 입주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? (일자리청년과 협조 작성)
- 2022. 12. 13.자로 마포청년나루는 상수동에서 합정동으로 이전하였고, 기존 사업장인 구청사 제3별관이 철거 예정이라 청년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출판문화진흥센터를 사용하게 됨.
- 4)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간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의 무엇을 검토하였습니까?
-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 연장 및 재계약, 운영방안 개선 등에 관한 검토 및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관련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제기된 민원, 언론보도 등에 대응해오고 있음.
 - 센터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구 구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.
- 5)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가 지정되기 이전인 지난 2010년 1월부터 서울시는 마포구 서교동 일대를 <마포 디자인·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>로 지정했습니다. 이를 이어 ‘문화’, ‘예술’이 살아있는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가 되기 위해 마포구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? (관광정책과 작성)

- 마포구는 ‘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’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울마당로 공영주차장 일대를 ‘어울마당로 특화거리로 조성’ 추진 예정임.
- 홍대거리 고유의 BI와 캐릭터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‘문화예술관광특구 안내체계’를 구축하고, 홍대 관광특구의 역량을 발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 등을 개최할 예정임.
- 또한, 홍대 걷고싶은거리 내 설치된 여행자 편의시설, 야외 전시존, 버스킹존 구조물을 문화공연의 다양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재조성 계획임.
-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에 내·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경쟁력 있는 특구로 육성할 예정임.